13세 소녀 학교 대신 공장서 '지옥의 나날'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연

순천 출신 김성주 할머니 손가락 절단되고 임금 한푼도 못받아
양금덕·박해옥 할머니 등도 고통의 삶…"70년 한 이제야 풀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주요 일지

1944년 5월	광주전남(150여명), 대전충남(150여명) 지역 약 300여명의 소녀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동원
1945년 10월21일	귀국
1994년 3월	양금덕할머니, 관부재판 원고로 소송에 참여
1999년 3월1일	원고 5명,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08년 11월8일	일본 최고재판소 최종 '기각' (패소 확정)
2009년 1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파문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1차 손해배상 소송
2013년 11월1일	광주지방법원,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선고
2014년 2월27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추가 2차 손배 소송
2015년 5월20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 소송 3차 손배 소송
2015년 6월24일	1차 소송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원고 승소
2017년 8월8일	광주지방법원, 3차 소송 원고 일부 승소
2017년 8월11일	광주지방법원, 2차 소송 원고 일부 승소
2018년 11월29일	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1차) 승소
2018년 12월5일	광주고등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2차) 항소심 선고기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3차) 항소심 선고기일

29일 오전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주자 김성주(89) 할머니는 "당연한 결과"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대법원은 2012년 10월 김성주·박해옥(86)·양금덕(87)·이동련(86)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김중곤(94)씨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는 김성주 할머니만 참석했고, 다른 원고들은 건강문제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대법관들의 선고 시간은 10여초 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원고들의 70여년 한을 풀어주기에는 충분했다. 이날 할머니들의 승소를 축하해주 듯 서울에서는 눈발이 날리기도 했다.

판결이 나온 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김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힘써준 한일 관계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미쓰비시는 정신대로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고, 보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순천남초등학교를 다녔던 김 할머니는 졸업 직후 13살 때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다. 하지만, 학교 대신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으로 끌려간 김 할머니는 해방 후인 1945년 10월까지 1년5개월간 지옥같은 날을 보냈다.

장갑 조차 끼지 않고 금속판을 절단하는 일을 하다 왼쪽 손가락 하나가 잘렸고, 1944년 12월 일어난 도난카이 대지진 때는 함께 갔던 친구 6명이 죽었다. 김 할머니 자신도 무릎뼈가 튀어나오는 중상을 입었다.

임금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평생 경제적·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

양금덕 할머니 등과 1999년부터 일본에서 10여년간 법정 싸움을 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009년 일본 정부 가 연금 99엔(한화 1000원)을 지급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하소연할 곳 없이 눈물만 흘렸다.

또다른 원고인 박해옥·양금덕·이동련 할머니의 삶도 다르지 않았다.

김중곤씨는 여동생(고 김순례)과 아내(고 김복례)가 강제징용 피해자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했던 여동생은 도난카이 대지진 때 목숨을 잃었고 훗날 만난 아내 또한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였다. 아내는 지난 2001년 세상을 떠났다.

재판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한국 대법원이 원고들에게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일본정부나 기업들이 한국 법원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상 이행 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표도 "정부가 대법 확정판결에 따른 남은 문제(위자료 지급 등)를 '피해자들 알아서 하라' 고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다음달 5일 열리는 김재림(86)·심선애(86)·양영수(87)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80)씨의 2차 손배소 항소심 선고와 14일 예정된 김영옥(84) 할머니, 유족 이경자(75)씨의 3차 소송 항소심 선고도 긍정적 결과가 전망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기 피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소환 통보

광주지검, 오늘까지 출석 요청

검찰이 사기피해를 본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에게 30일까지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29일 "최근 (윤 전 시장의)변호사를 통해 윤 전 시장에게 30일까지 나와달라고 소환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이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과 관련 있는 지, 사기피해액 4억 5000만원 중 은행대출(3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할 대목이 있다"면서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기사건일지라도 돈을 보낸 의도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 관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만 현재까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자라는 점에서 강제 수사는 어려우며, 소환통보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면서 "전직 광주시장을 지낸 분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1억원을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정해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윤 전 시장 사기사건도 선거법 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 기간 내에 기본적인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여·49)씨에게 4억5000만원을 보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A씨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으며, 현재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고위직 인사…서울경찰청장에 원경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 고흥 출신 김재규

정부는 29일 원경환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으로 각각 승진 내정됐다.

경찰청장(치안총감)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6명으로, 차기 경찰청장의 잠재적 후보군이다. 임호선 경찰청 차장·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이상정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이로써 치안정감 6명의 입직(경찰 입문)경로별 배분은 경찰대 3명, 간부후보 3명이 됐다. 지역은 충청 2명, 대구경북(TK)·부산경남(PK)·호남·강원 각 1명이다.

정부는 이날 경무관 4명의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했다.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를 졸업한 김재규(경찰대 2기)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은 서울청 차장으로 각각 치안감 승진과 함께 전보 내정됐다.

수평이동하는 치안감 13명의 전보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한편 그동안 공석이던 전남청 제1부장에 광주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신현택(행정고시 34회) 경무관이 부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검찰, 광주·전남 지방선거 사범 수사 속도
강인규 나주시장 기소…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

내달 13일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광주·전남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충곤 화순군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육성으로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 시장이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 결론 내렸다. 다만 강 시장의 가족이 이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가족을 기소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기소를 피했다. 구 군수는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TV 시청료를 군에서 납부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됐었다. 검찰은 지자체 홍보물 초과발행 주체가 구 군수가 아닌 점과 기부행위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은 현재까지 광주·전남의 지자체장·국회의원 당선자 중 3명을 기소(일부 기소 포함)했고, 8명을 불기소 결론 내렸다.

송갑석 의원, 장석웅 전남교육감, 유두석 장성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6·13선거 당선자와 관련해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16명이 기소됐으며,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몰카 아니라 해충퇴치기"…화장실에 설치하고 발뺌

쌍나팔

○…회사 내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용변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려한 40대 사업주가 교도소행.

○…29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 황보승혁)에 따르면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6)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 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직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것.

○…A씨는 몰래카메라 설치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해충퇴치기라며 거짓말을 하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6
	한국어교육학과	1
사범	유아교육과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7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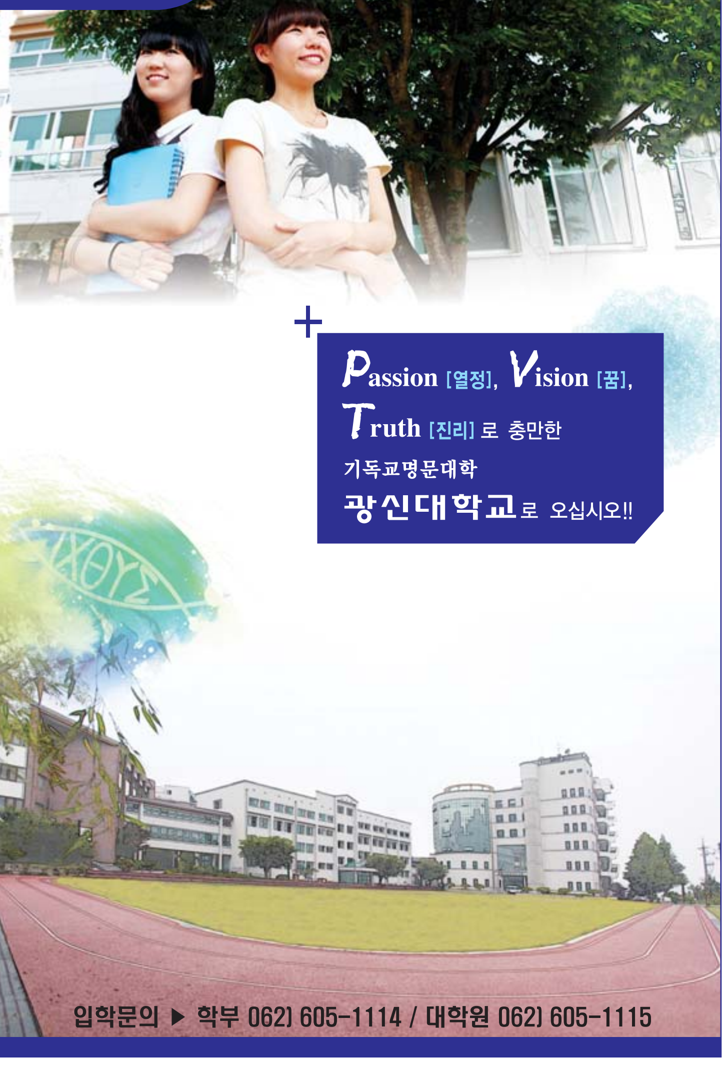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원서접수 : 2018. 11. 20(화) ~ 11. 28(수)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8. 12. 3(월) ~ 12. 12(수)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